

알려드립니다.



갑진년 새해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.
그동안 교육과정 운영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발전에 협조해 주셔서 깊이
감사드립니다.

‘떠날 때를 알고 떠나는 이의 뒷모습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! ’

3학년 학생들의 졸업을 앞두고, 문득 한 시인의 시구가 떠오릅니다. 코로나 19의 지속으로 그동안 힘든 나날이 계속되었지만 우리 3학년 학생들이 모든 시련과 위기를 잘 극복하고 어느덧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.

이별이란 무척이나 가슴 아리고 슬픈 것이지만, 나무가 봄, 여름, 가을의 찬란함과 영광을 뒤로한 채, 새 생명을 잉태하기 위해 나뭇잎을 떨궈내듯, 우리도 더 큰 주천인으로 웅비하기 위해 모든 미련과 아쉬움을 훌훌 떨어버리고, 2024년의 각오와 포부를 양 날개에 얹고 더 넓은 세상을 향해 힘차게 날갯짓하고자 합니다.

이제 큰 꿈을 안고 교문을 나서는 졸업생들을 위해 함께 자리하여 축하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그동안 본교의 발전과 학생들의 건실한 성장을 위해 보내주신 성원에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,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여 학부모님 가정에 평안과 행복이 깃들길 기원합니다.

- 아 래 -

1. 대상 : 제52회(통합 68회) 졸업생
2. 일시 : 2024년 2월 2일(금) 오전 10시 00분
3. 장소 : 본교 예술놀이터

2024년 1월 29일

주 천 중 학 교 장 서 신 영
주천중학교운영위원장 구 충 서
주천중학교학생회장 이 상 협

